

1223(금) 유다서 1장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유다서는 회람서신으로, 짧지만 영향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다서를 읽으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밖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1:4).
부도덕한 행실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겼고(1:7-8),
애찬을 방탕한 주연처럼 여겨 함부로 행동했습니다(1:12).
육에 속한 자들로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습니다(1:10,19).

유다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1:3).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믿음의 도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1:3)”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기억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인식하며 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전통에 서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1:17-18),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1:20).
(1:1,25/1:4,20-21)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 ❶ 나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 ❷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니까?

시작기도 + 통독 유다서 1장